정상필 전 광주일보 기자

한국아빠의 프랑스식 육아 '메르씨 빠빠!' 펴내

"육아는 부모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나를 낳아 길러준 것은 내 부모이지만, 나를 어른으로 만드는 건 내 아이들이다."

선언적 정의와도 같은 이 말은 어른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자칭 '시즌제 인생'을 살고 있는 정상필 작가. 그의 말은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프랑수아즈 돌포의 "엄마를 만드는 것은 아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정 작가는 프랑스인 와이프와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프랑스 중부 불루아라는 도시에 거주한다. 원래 그는 구례 출신으로, 한때는 광주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프랑스 초등학교 교사인 여성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며 현재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정 작가가 말하는 '시즌제 인생'은 시즌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20~2021시즌에 난생 처음 전업주부로 지냈고, 그 이전 시즌엔 우버 기사, 번역가"로 활동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방송국 코디네이터, 일간지 기자로 바쁘게 살았다.

그가 이번에 "아이와 함께 크는 한국아빠의 프랑스식 육아"를 담은 '메르씨 빠빠!'(오엘북스)를 펴냈다. 최근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 잠시 광주에 들렀던 저자를 만나 프랑스에서의 생활, 그곳의 육아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저자는 결혼 10주년이 지나자 자신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 정리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아는 출판사에서 다문화 가정의 육아와 가족 일상을 책으로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위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주로 기르는 것이고, 아이가 생기기만 하면 엄마라는 한 여자의 삶은 없어진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죠. 한마디로 한국적 육아의 현실에 반기를 들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만약 한국에서 네 명의 아이를 키운다면 '진정한 애국자'라는 말을 들었을 게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한국 평균 출생률이 0.84명으로 197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작가는 "아이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걸 우리의 사례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지만 조그만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면 그걸로 내 이야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웃었다.

그의 말대로 '전라도 촌놈'과 프랑스 뽕도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아내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다. 그럼에도 아이를 네 명이나 낳았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욕심을 뛰어넘는 남다른 육아방식이 있을 법했다.

"한국과 프랑스의 육아에는 어떤 점이 다른가"라는 물음에 그는 "프랑스 부모들은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 같다"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28개월 된 막내아이가 기저귀를 뗀 일화를 들려줬다.

"어린이집에서는 자꾸 '아이가 원해서 뗀 게 맞나요?'라고 물어요. 혹여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변기에 데려가 앉힌 게 아닌지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이른 편이어서 그런 걱정을 하는 듯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유아뿐 아니라 조금 큰아이들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았다. 그곳에는 선행학습 같은 개념이 없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 중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학생이 아는 학생보다 더 많은데 이는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나이에 맞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에선 영화를 보더라도 시청 가능한 나이에 맞춰 보여준다. 단적으로 12세 미만 영화를 11세에게 보여주는 일은 거의 없다.

다른 무엇보다 그는 육아에는 답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아 방식은 "프랑스 가족의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과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며 "프랑스 가족의 문화를 배우면서 육아를 동시에 배운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을 좋은 아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인 부인, 네 명의 아이들과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정상필 작가(오른쪽에서 두번째).

결혼 10주년…한국 아빠 프랑스 엄마 남다른 육아방식 담아
아이 행복만큼 부모 행복도 중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밖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그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통해 종종 한국의 소식을 접한다.

"너무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든 게 과잉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위기가 육아에도 드러나지 않나 싶구요. 결과적으로 이 같은 양상이 결합돼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는 걸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가족 이야기를 모티브로 두권의 책을 냈다. 이전의 책 '세상이 멈추자 일기장을 열었다'나 이번의 책은 모두 가족을 테마로 했다. 앞으로도 가족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프랑스 사람들은 아이들을 왜 저렇게 키우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 지구 반대편에서 당신(독자)과 같은 고민으로 일상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 있으니 외로워 마세요. 우린 그저 어른이 되고 있는 과정이며, 중요한 건 당신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슈베르트의 밤'

쿠아라 앙상블 살롱음악회,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김민수

이준성

13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광주문화재단의 월요콘서트는 (사)문화예술진흥회가 '쿠아라 앙상블의 슈베르티아데 살롱음악회'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지난주 진행된 '월요콘서트' 주제인 음악가 슈베르트를 다시 한번 다루는 무대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 제목 '슈베르티아데(Schubertiade)'는 '슈베르트의 밤'이라는 뜻을 담았으며 슈베르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름이기도 하다.

공연 프로그램은 백조의 노래 4번 '세레나데', 피아노 3중주 제2번 '안단테 콘 모토', '마왕'(바이올린, 피아노 편곡) 피아노 5중주 '송어' 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은 바이올린 이준성, 비올라 임형진, 첼로 김민수, 더블베이스 윤재웅, 피아노 이가민 씨가 출연한다.

(사)문화예술진흥회는 2007년 3월에 설립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쿠아라 앙상블, 오케스트라, 성악가 등 다양한 뮤지션이 소속돼 있으며 '삶을 위한 예술'을 캐치프레이즈로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월요콘서트는 쿠아라 앙상블이 기획했다.

선착순 50명 무료관람. 티켓 예매방법은 문화N티켓 홈페이지 통해 좌석 선택 예약 및 직접 모바일 발권이 가능하다.

한편 월요콘서트 다음 공연은 오는 27일 '라인콰르텟' 의 'Here and Now' 공연을 선보인다. 문의 062-670-792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큰 감동 긴 여운…치유 넘어 화합으로

여순사건 배경 창작발레 '애기섬' 공연 성료

1948년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한 창작발레 '애기섬'〈사진〉이 큰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광주 공연을 마쳤다.

광주문화재단 우수공연초청기획사업 두 번째 공연으로 지난 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대에서 선보인 나라발레씨어터의 '애기섬'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막을 내렸다.

창작발레 '애기섬'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며 봉기하고, 이로 인한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 당한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은 해방 이후 극도로 불안한 좌와 우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 소용돌이에 휘말린 엇갈린 주인공들의 극한의 대립과 갈등이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마침내는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용서와 치유로 미래를 열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하정 감독의 안무에 국립발레단 주역 출신의 발레리노 윤전일, 현대무용계 스타로 손꼽히는 안남근, 발레리나 염하정 등이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매료시키며 그날의 기억 속으로 관객들을 이끌었다.

한편 이날 공연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이 관람해 눈길을 끌었다. 소 의원은 "'애기섬' 공연을 통해 아픈 과거인 여순사건을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어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역사적 상처의 치유를 넘어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감회를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헌 종이로 만든 보물단지 '민예품'

11월 30일까지 비움박물관

버려진 종이로 만들어진 항아리, 헌 신문지로 만든 상자.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담긴 다양한 민속품을을 전시하고 있는 비움박물관(동구 제봉로 143-1)은 다양한 주제로 사계절 특별전을 열고 있다. 가을을 맞아 준비한 전시는 '헌 종이로 만든 보물단지'전이다.

1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힘들었던 시절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묻어있는 민예품을 만나는 자리다.

가난했던 1960년대까지 사람들은 헌 종이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 썼다. 밀가루 포대, 철지난 달력, 헌 신문지, 연필로 눌러쓴 헌 공책, 붓글씨를 연습한 화선지, 누렇게 뜬 헌책 등을 풀로 이기고 뭉쳐져 제작한 민예품들은 유용한 살림도구가 됐다.

이영화 관장은 "쓰임새조차 이미 닳고 닳은 헌종이들을 보물처럼 풀로 이기고 뭉쳐서 틀을 만들고 오려 붙인 손끝의 실용성과 조형성은 바라보기만 해도 뭉클하다"며 "민예품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 작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 당일인 14일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버려진 종이로 만든 민예품

'예쓰투어' 시즌2 참가자 모집…중외공원 숲길 일대

광주관광재단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부터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하는 _예쓰(예술+쓰레기줍기)투어' 시즌2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술여행 클린워킹투어인 '예쓰투어'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광주 관광과 코로나 일상시대 소규모, 비대면 운영으로 '안전하게 떠나는 클린한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일정은 광주비엔날레광장에서 시작해 중외공원 생태 숲길을 따라 쓰레기를 주운 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로를 돌아보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 후 예술관광 팝업스토어를 체험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장갑, 쓰레기 봉투 등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준비물품을 전달받는다. 광주관광재단,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11-365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